

한국의 대표 문화행사로 '우뚛'

근대유산 활용 새로운 트렌드 도입... 군산야행, 문화재청 평가 전국 1위 등극

특색 있는 군산만의 근대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 문화재 야행(夜行)이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2017년 문화재 야행사업 모니터링 용역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전국 1위에 등극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거듭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결과는 2017년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실시된 문화재 야행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평가, 현장 모니터링 분석, 관람객 만족도 조사, 건설링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로서 군산야행의 분야별 세부 성과 지표는 ▲외부 관람객 점유비율(1위, 44.7%) ▲문화재 부각효과 및 가치상승(1위, 77점) ▲야행 콘텐츠 개발 및 만족도(1위, 76.8%) ▲지역활성화 효과(1위, 79점) ▲방문객 평균 소비 지출액(2위, 군산 47,761원/인당) 당 전국 평균(25,000원/인당)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지자체별 특징 분석에서는 ▲군산야행 빛의 거리 상설 조성 ▲구도심지역 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제를 반영한 거리 콘텐츠 구성 및 문화재 교육 효과 도모 등을 군산야행의 성공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로써 군산야행은 ▲2016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야행사업 우수사업 선정(2개부문) ▲2017년,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Phnacle Awards 수상(2개부문) ▲2016~2018년, 국비 공모사업(문화재야행) 3년 연속 선정 ▲2018년, 국비 공모사업(문화재야행) 전국 최고규모 국비 지원 확정(국비 3억4천만원, 도비 1억8백만원) ▲2016~2017년, 문화재청 평가 문화재 야행 전국 1위 2년 연속 등극 ▲2016~2017년, 누적 방문객 25만명 돌파(2016년 9만명(1회, 2일간)/2017년 16만명(2회, 4일간)의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야간형 문화행사로 전진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문화



‘군산 문화재 야행(夜行)’이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2017년 문화재 야행사업 모니터링 용역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전국 1위에 등극 하였다.

재 야행(夜行)을 통한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야행을 시작한 이후 원도심 행사구간에 비거나 담았던 건물들이 점차 상점들로 리모델링되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는 야행을 시작한 이후 원도심 콘텐츠 개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 군산시가 500만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무술년 새해 장학금 기탁 열기 '후끈'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잇따라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난 연말에 이어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를 맞아 기관, 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2일 익산시(시장 정현율)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익산시 출입기자단에서 2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익명의 기탁자 100만원 ▲탄소포인트 신청자 940여만원을 각각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익산시 출입기자단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장학금을 전하며 화려한 상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응원한다고 밝혔으며, 이희창 회계사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관내 탄소포인트 참여 세대 중 기부를 희망하는 609세대가 전 기사용 절감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장학재단에 기탁하면서 온실가스는

줄이고 나눔의 온도는 높였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릴레이가 이어졌다. ▲주얼엘리스 협의회 500만원 ▲마한항토인삼영농조합법인 100만원 ▲전국 신동 총무계장 40만원 등을 각각 기탁하면서 차가운 겨울 날씨가 후끈한 열기로 따뜻하다.

주얼엘리스 협의회는 지역 사랑 나눔을 위한 65개 업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으며, 마한항토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민경천)은 국화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 전국 신동 총무계장은 인구늘리기 우수지원 포상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면서 지역인재에 힘을 보탰다.

익산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인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 해에 이어 2018년 새해에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더욱 훈훈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며 "더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신규 투자·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성메디칼·디에스티홀릭 등 4개 업체 익산 제3일반산단 분양계약·투자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4일 시청 상활실에서 정현율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주)대성메디칼 양용호 대표, (주)디에스티홀릭 문익주 대표, (주)비앤디네트웍스 김영 대표, (유)신안창호산업 서숙영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대성메디칼 같은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을 개발한 업체로 화장품, 탈지면, 알루미늄을 화장품 회사와 의료가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제3산단 6,254㎡ 부지에 20여억원을 투자해 의약품 제조, 제단기공 제조설비 및 목화재배연구실을 구축된 단(단) 가공하여 사업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 입주업체이자 자회사인 (주)비앤디네트웍스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디에스티홀릭은 LED조명 전문제조업체로서 제3산단 3,300㎡ 부지에 2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다년간 LED 평판조명, 다온라이트 등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작년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아파트 등 생활조명과 공장조명, 식물공장건설 등에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익산제3산단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주)비앤디네트웍스는 아스팔트, 건물외벽 등에 도포하여 태양광과 반응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화시켜주는 친환경 소재인 국내최초 1억형 광촉매(이산화티타늄, TD2) 제조업체로서 제3산단 기 투자(6,600㎡) 외에 추가로 인접 3,300㎡ 부지에 30여억원을 투자해 광민감제 투여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치주염을 치료하는 광치료 연구제 및 치료기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동물테스트를 완료하고 임상시험 준비중이다. 기존 물리적인 치료법 대비 빠르고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상업화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신안창호산업은 제3산단 3,300㎡ 부지에 12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PVC, 알루미늄 창호를 제작·조립하여 건축물 건설현장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창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3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기반시설을 완벽하고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산단단지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계획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총 80여억원을 투자하여 9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업체의 신속한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율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익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12일까지 '겨울특강'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이 2018년을 시작하며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다양한 영역의 겨울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일부터 12일까지 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특강은 그동안 정규강좌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신규강좌를 적극 발굴하여 방학을 맞은 어린이나 시니어, 장애인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주제로는 '블로그의 모든 것'을 포함한 총 27개 과정이 운영되며 ▲인문교양 5강좌 ▲생활문화 7강좌 ▲문화예술 5강좌 ▲시니어 4강좌 ▲어린이 5강좌 ▲장애인 1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배움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평생학습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www.gunsan.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평생학습관(☎063-454-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원광대, 프라임사업 2차년도 사업비 인센티브 11억 5천만 원 추가 지원 받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프라임사업 2차년도에 사업비 인센티브로 약 11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추가 인센티브는 한국연구재단의 2차년도 PRIME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 원광대 등 일부 대학에만 지원됐으며, 원광대는 2차년도 사업추진의 우수성이 인정돼 최고금액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양호' 등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5억 9천만 원에 이어 2차년도 평가에서도 인센티

브를 받아 21개 프라임사업 수행 대학 중 최고수준인 150억 원의 2차년도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원광대는 2016년 5월 PRIME사업 선정 이후 학사구조개편을 모두 마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완공 예정인 최첨단 교육용 건물인 PRIME관 신축과 학생 전공실습공간인 대강24.0 구축 등 PRIME사업 전 영역에 걸쳐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미성동, 옥녀 저수지·수로 방역소독 실시

군산시 미성동은 4일 새마을협의회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미성라이센스 작목반 등 자생단체등과 함께 방역방제기 농업용 비료살포기를 동원하여 옥녀 저수지 및 수로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소독기 등 방역차량을 이용한 소독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철새도래지인 저수지·수로 등은 공간이 광범위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어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미성동에서 진행한 방역은 방역

장비기를 동원하여 옥녀 저수지 및 수로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차량 접근이 어렵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농업용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동원 미성동장은 "저수지 등 철새출현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방제기를 동원하고 지역농민단체와 함께 사용가능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방역 범위를 넓혀 소독하여 청정 군산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